

주요 내용

1. [가나안 청년의 삶과 신앙]

가나안 청년 73%, 고교 졸업 후 교회 이탈!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초중고생의 사회 인식

2) 지역별 근로소득 차이



가나안 청년 73%, 고교 졸업 후 교회 이탈!

보통 개신교인 대상 조사를 하면 본인의 종교를 개신교로 체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개신교인의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26.6%이니(넘버즈 224호 참조) 10명 중 3명이 가나안 성도인 셈이다. 2012년 10.5%(한목협 조사 결과)에서 10년 사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어서 가나안 성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교회 출석 개신교인과 가나안 성도의 신앙 의식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넘버즈 226호에서는 '기독교 청년' 중 교회 출석하는 청년의 삶을 다루었다면 이번 넘버즈는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삶과 신앙을 들여다본다.

개신교인 19~34세 청년 중 가나안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명 중 1명(24%) 정도였고, 교회 이탈 시기는 세상을 본격적으로 접하는 대학교 이후가 73%나 되었다. 신앙적 회의로 교회는 떠났지만 그들은 가족을 매개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과거 출석 교회의 따뜻한 위로를 아쉬워하고 있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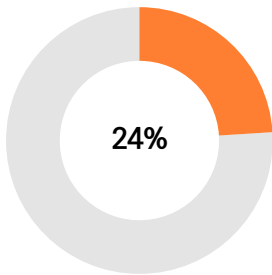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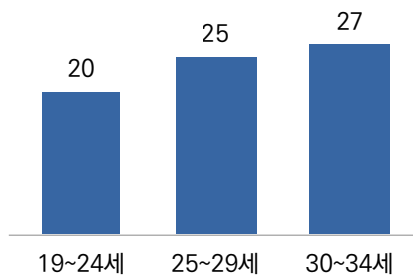
[가나안 청년 특성] 개신교인 청년 중 가나안 성도의 비율 24%

- 가장 최근에 조사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19~34세에 해당하는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는 24%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나안 청년 비율



[그림] 연령별 가나안 청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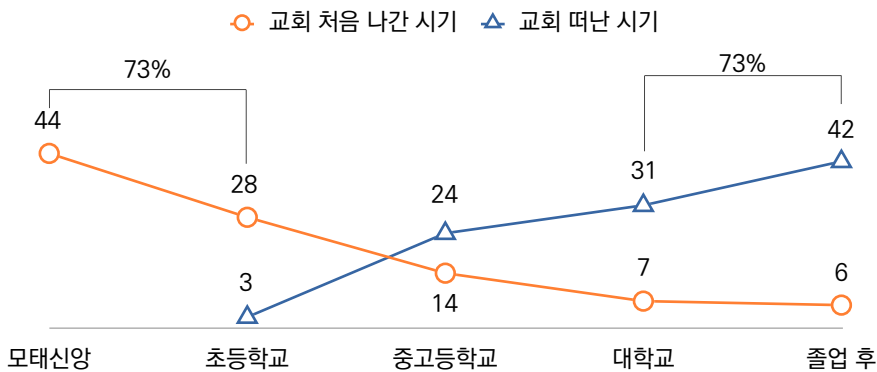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04. (만 19~34세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 가나안 청년 10명 중 7명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 이탈!

- 가나안 청년은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언제 교회를 이탈했을까? 우선 '교회에 처음 나간 시기'는 '모태 신앙'인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등학교' 28%, '중고등학교 시절' 14%로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한 비율이 73%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를 떠난 시기는 '(대학교) 졸업 후'가 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교'가 31%로 대학교 이후 이탈한 비율이 총 73%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들의 교회 이탈 러시(rush)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교회 다니기 시작한/떠난 시기 (가나안 청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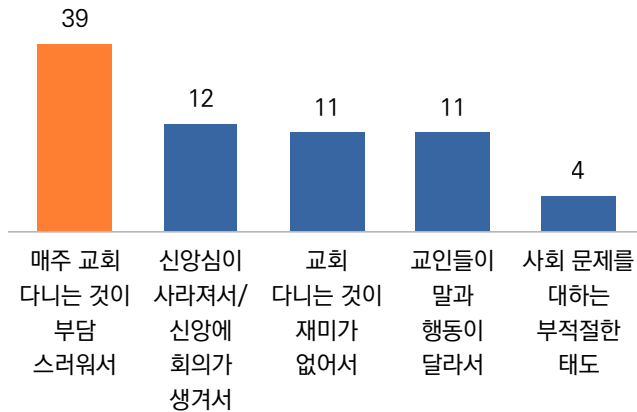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중 20~30대 가나안 청년 174명, 온라인 조사, 2023.01.01.~01.16.)

NOTE) 가나안 청년 표본수가 174명으로 많지 않음에 유의할 것

◎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떠난 이유, ‘매주 가는 것 부담스러워!’

- ▶ 가나안 청년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앙심이 사라져서’ 12%,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어서’ 11% 등의 순이었다. 교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부담감, 신앙심, 재미’ 등 개인에 대한 문제 요인이 더 컸다.

[그림] 교회를 떠난 이유 (가나안 청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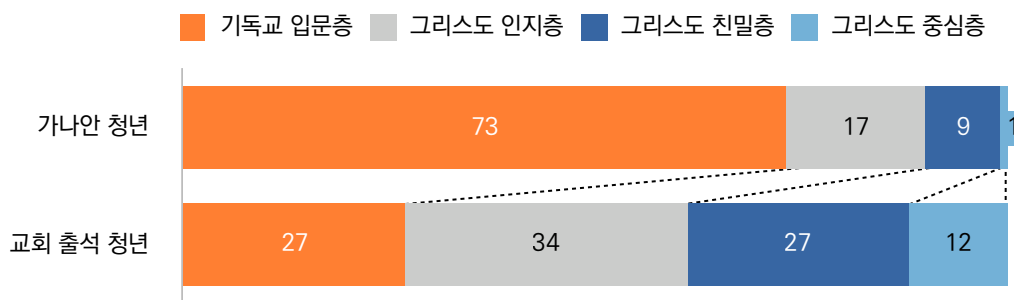
02

[가나안 청년의 신앙]

가나안 청년 73%, ‘그리스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

- ▶ 가나안 청년의 신앙 수준은 어떻게? 신앙 단계에 대한 4가지 수준의 보기를 주고 선택하게 한 결과, 73%의 가나안 청년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기독교 입문층에 해당하는 신앙 정도로 나타나 ‘교회 출석 청년’의 신앙 수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교회 출석 여부별 신앙 수준 차이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Note) 신앙 단계에 대한 보기를 주고 선택한 수준임

1단계(기독교 입문층)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2단계(그리스도 인지층)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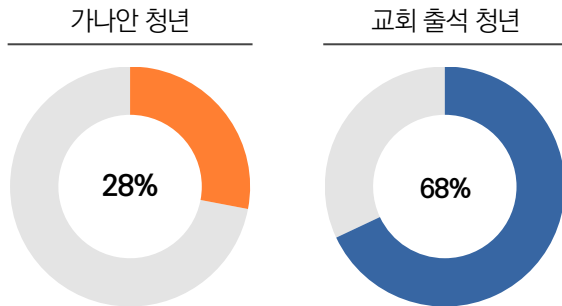
3단계(그리스도 친밀층)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그리스도 중심층)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 구원을 확신하는 가나안 청년, 10명 중 3명도 안 돼

- ▶ 구원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가나안 청년'과 '교회 출석 청년' 간 인식 차이가 컸는데 '교회 출석 청년'은 10명 중 7명가량(68%)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가나안 청년'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는 (28%) 비율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응답해 앞서 신앙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구원에 대한 확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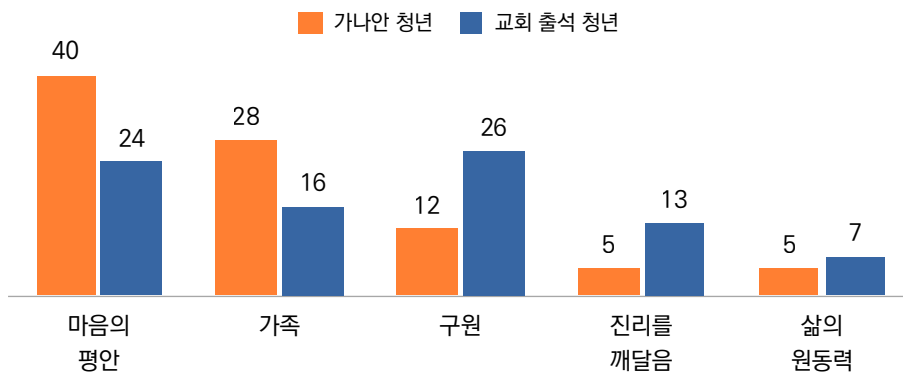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 가나안 청년 10명 중 3명,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유지!

- ▶ 가나안 청년의 신앙생활의 이유로는 '마음의 평안(40%)'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가족(28%)', '구원(12%)' 순이었다. 차 순위로 응답한 '가족' 요인이 '교회 출석 청년' 대비 크게 작용하는 점이 특징적으로 '가족'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결 장치이자 안전망인 셈이다.

[그림] 신앙생활의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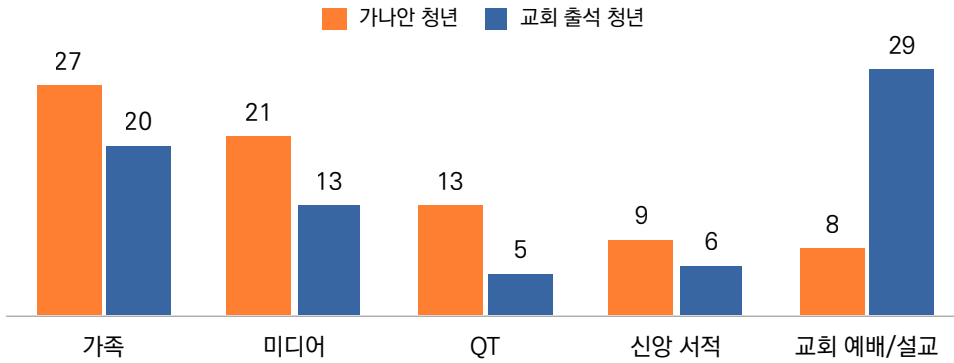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 가나안 청년의 신앙 성장, '가족'과 '미디어' 영향 커

- ▶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역시 가나안 청년은 위에서 '신앙생활의 이유' 1위로 언급한 '가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 ▶ '교회 출석 청년'이 '출석 교회 예배/설교(29%)'를 신앙 성장에 있어 가장 큰 도움 요소로 응답한 데 반해 '가나안 청년'은 '가족(27%)', '미디어(21%)', 'QT(13%)' 순으로 나타나 '가족'과 '미디어'가 신앙 성장에 큰 도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가나안 청년 기준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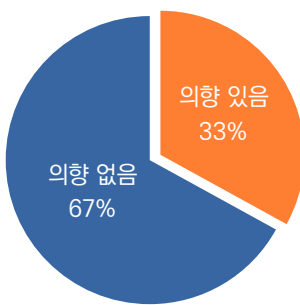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중 20~30대 가나안 청년 174명, 온라인 조사, 2023.01.01.-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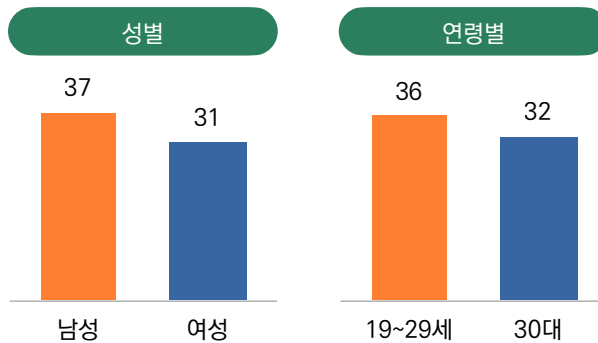
◎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

- ▶ 가나안 청년에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33%)이 교회 재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 ▶ 교회 재출석 의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30대보다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 재출석 의향 (가나안 청년, '매우+약간' 있다 비율**, %)



[그림] 응답자 특성별 교회 재출석 의향 (가나안 청년, '매우+약간' 있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중 20~30대 가나안 청년 174명, 온라인 조사, 2023.01.01.-01.16.)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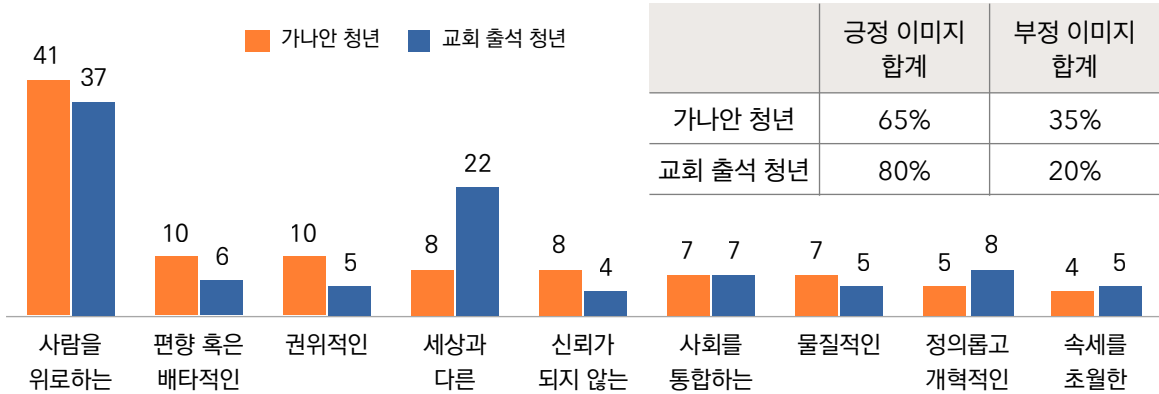
NOTE) 가나안 청년 표본수가 174명으로 많지 않음에 유의할 것

03

[가나안 청년이 기대하는 교회] 가나안 청년이 생각하는 기독교, '위로'의 종교!

- ▶ '가나안 청년'에게 '기독교'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 기독교에 대한 9개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중 가장 기독교 이미지에 가까운 것을 1개만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사람을 위로하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가나안 청년 41%, 교회 출석 청년 37%).
- ▶ 가나안 청년이 부정적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의 합은 35%로, 교회 출석 청년의 20%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기독교 이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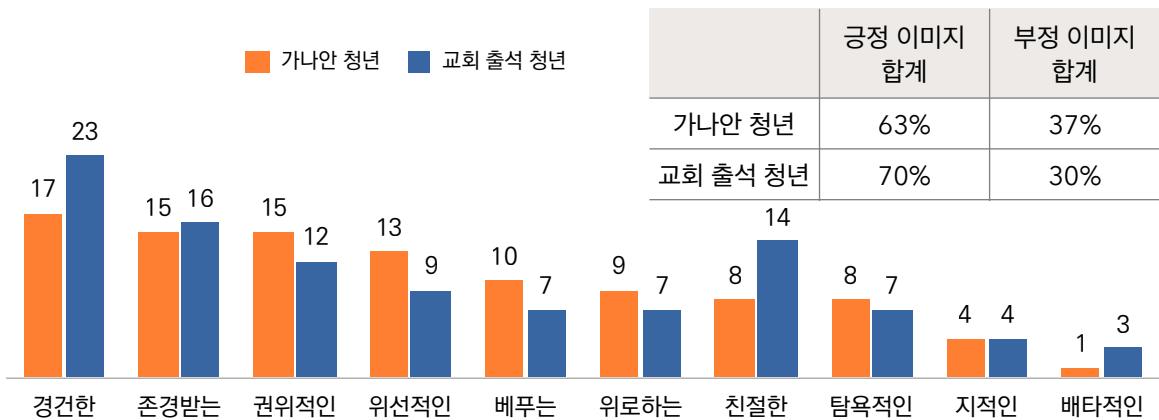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 가나안 청년이 생각하는 목회자, 경건하고 존경받지만 권위적이고 위선적!

- ▶ 이번에는 가나안 청년이 생각하는 목사님의 이미지 10개를 제시하고 물은 결과, '경건한(17%)', '존경받는(15%)' 등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권위적인(15%)', '위선적인(13%)'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 청년'과 비교했을 때 '경건한' 이미지는 다소 낮고, '위선적인'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가나안 청년이 부정적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의 합은 37%로, 교회 출석 청년의 30%보다 다소 높았다.

[그림] 목사님 이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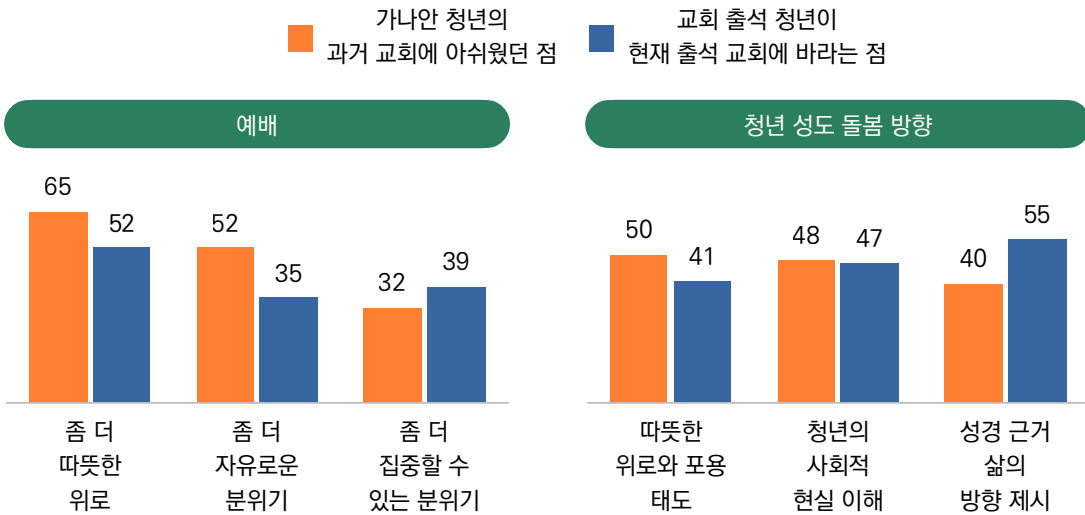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 가나안 청년이 과거 교회에 아쉬웠던 점, '따뜻함과 위로'!

- ▶ 가나안 청년들에게 과거 출석 교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묻은 결과, '예배'에서는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아쉬웠다는 의견이 높았고, '청년 성도 돌봄 방향'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 태도'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나안 청년이 기대하는 교회는 '따뜻함'과 '위로'가 있는 교회인 것이다.

[그림] 과거 교회에 아쉬웠던 점/현재 교회에 바라는 점 (1+2+3순위, 상위 3위,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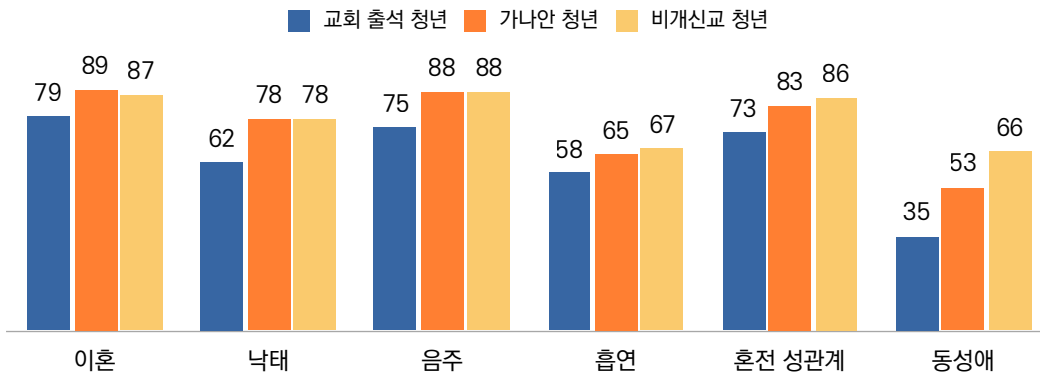
04

[가나안 청년의 사회 윤리 의식]

가나안 청년의 윤리문제 의식, 넌크리스천과 비슷!

- ▶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관한 가나안 청년의 의식은 어떠할까? 교회 출석 청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혼, 낙태, 동성애 등 주요 윤리문제에 관한 수용도에 있어 가나안 청년은 전반적으로 교회 출석 청년보다는 넌크리스천에 더 가까운 수용도를 나타냈다.

[그림] 현대사회 윤리문제 수용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해도 무방'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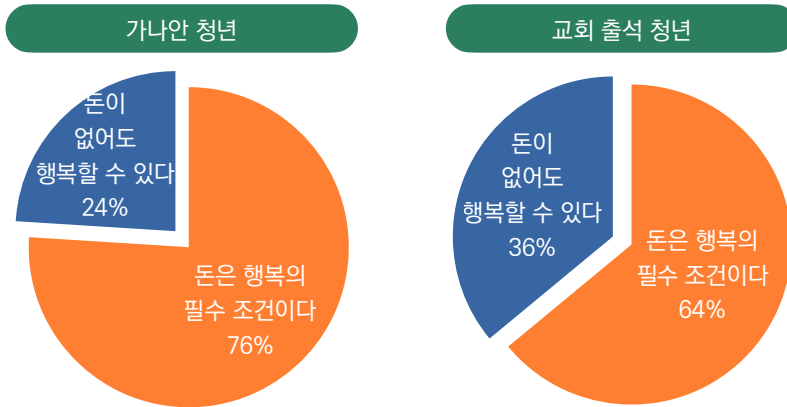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육회협의회,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4.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중 20~30대 가나안 청년 174명, 교회 출석 청년 376명 /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1000명 중 20~30대 비개신교 청년 326명, 온라인 조사, 2023.01.01.~01.16.)

◎ 가나안 청년, 교회 출석 청년보다 돈 중시 경향 높아!

-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나안 청년과 교회 출석 청년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에 대해 가나안 청년과 교회 출석 청년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였는데, 가나안 청년의 경우 4명 중 3명(76%)이 '돈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꼽아 교회 출석 청년(64%)보다 돈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돈과 행복에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중 가나안 청년 240명/교회 출석 청년 76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한때 개신교인임을 표현하는 말로 '교회에 나간다'가 관례적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기독교적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안 나가'는 이들을 해학적으로 지칭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고 교계에서 정식 용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신교인의 새로운 부류가 생긴 것이다.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012년 10.5%(한목협)에서 2023년 26.6%(목회데이터연구소)까지 10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개신교인의 비율은 22.5%에서 16.6%로 감소했으니, 교세는 그야말로 이중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6호 넘버즈에서 기독 청년 중 교회 출석 청년을 다루었는데, 이번 호에서 가나안 청년만을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개신교인 중 가장 많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시기가 청년 때인 데다가 실제 교회를 등진 청년의 신앙 의식과 교회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가나안 청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회를 처음 나간 시기는 초등학교 이전이 73%인데 이중 모태신앙이 44%이니 기독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교회를 떠나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가 무려 73%로, 학업과 입시의 해방감과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마주하는 새로운 환경이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매주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돼서'가 39%로 '신앙심이 사라져서'(12%)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나안 성도가 본격적으로 언급되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개신교인이 교회를 등지는 주된 이유는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였는데¹⁾ 이제는 교회가 개신교인의 필요조건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 청년의 신앙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 '교회 중심(15%)'이 아닌 '개인의 믿음과 실천(85%)'이라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²⁾

가장 심각한 것은 이들의 신앙 상태이다. 신앙 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가나안 청년은 무려 73%에 달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10명 중 3명꼴인 28%로 교회 출석 청년(6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구원(12%)'보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응답이 28%로 더 높은 정도였으며, '이혼, 낙태, 음주, 흡연, 동성애' 같은 현대사회 윤리 문제에 관한 수용도는 교회 출석 청년보다 비개신교인에 훨씬 더 가까웠다.

이러한 가나안 청년을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먼저 가나안 성도의 증가를 위중하게 생각하고 공동체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와 공동체가 교인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는 여러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회로 되돌아오는 가나안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나안 청년의 교회 재출석 의향률은 33%인데 이는 청년기를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회가 할 일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실망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내 청년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교회 예배/리더십/교육/문화 모든 영역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VP, 2015.10.14.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 2023.12. (만 19~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1.08.~11.14.)

1.[초중고생의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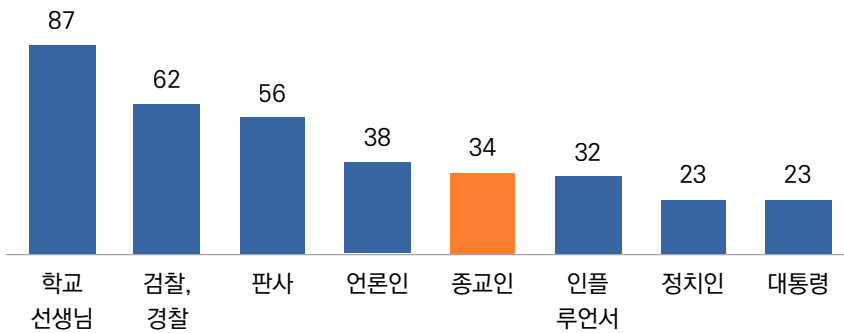
2.[지역별 근로소득 차이]



중고생 3명 중 1명만 종교인 신뢰해!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 성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최근 발표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중고등학생의 직업 신뢰도를 알아보려고 8가지 직업을 제시하고, 각각의 신뢰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검찰/경찰', '판사' 등의 순이었다. '종교인'은 34%로 중고생 3명 중 1명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정치인'과 '대통령'의 신뢰도는 2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림] 직업별 신뢰도 (중고생, '매우+신뢰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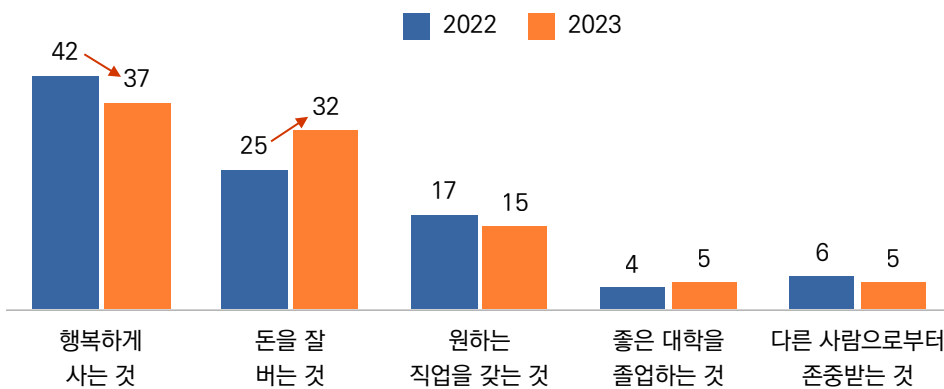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2023.12. (전국 초중고 13,864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19.)
 **4점 척도

◎ 학생들이 그리는 성공의 모습, '돈 잘 버는 것' 상승세!

- ▶ 이번에는 초중고학생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공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질문한 결과 2022년 이어 2023년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37%)'이 1위였고, 차 순위로는 '돈을 잘 버는 것(32%)',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1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꼽은 비율은 감소한 반면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한 응답은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공의 모습 인식 (초중고생,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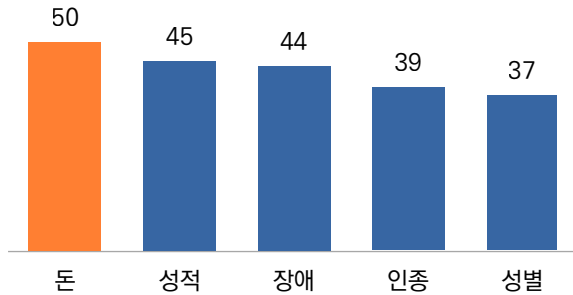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2023.12. (전국 초중고 13,864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19.)

◎ 초중고생 절반, ‘우리 사회, 돈에 따라 차별한다!’

- ▶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 5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우리 사회가 ‘돈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에 동의한 비율이 50%로, 초중고 학생 절반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조건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외 차별 동의율은 ‘성적’ 45%, ‘장애’ 44%, ‘인종’ 39% 등의 순이었다.

[그림] 조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차별 정도 (초중고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 2023.12. (전국 초중고 13,864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19.)

**4점 척도



근로자 1인당 소득, 광역 단체 중 '세종시'가 가장 높아

-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과로 파악한 시도별 근로소득의 차이와 상하위 소득 격차를 알아본다. 직장인 1인당 총급여액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의 경우 전국 평균이 3,133만 원이었고, 17개 시도 중 7개 시도만이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이 4,05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2,757만 원으로 가장 적어 격차가 1,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별 직장인 중위소득 (2022년 총급여 기준**, 만 원)

지역	중위소득	지역	중위소득	지역	중위소득
세종	4,058	충북	3,154	부산	2,777
울산	3,600	경남	3,107	광주	2,767
서울	3,297	경북	3,104	제주	2,763
충남	3,270	전남	3,050	대구	2,760
경기	3,184	인천	3,011	전북	2,757
대전	3,159	강원	2,820	전국 평균 3,133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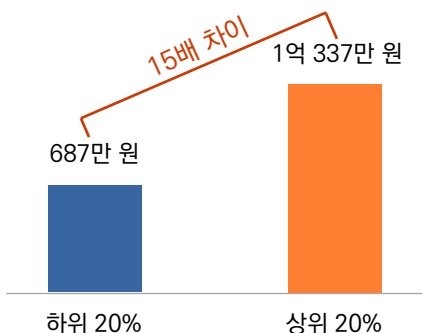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보도자료, 상위 0.1%의 연봉도 시별도 3배 차이(원자료: 국세청), 2024.01.26

**총급여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식대 등)

◎ 근로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1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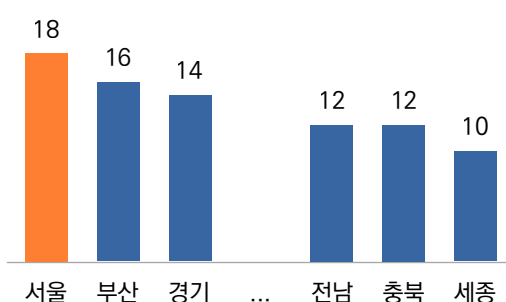
- ▶ 시도별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한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근로소득 상위 20%의 평균액은 1억 337만 원으로 하위 20%인 687만 원의 15배에 달했다.
- ▶ 가장 소득 격차가 심한 곳은 서울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18배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0배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득 격차도 크고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그림] 평균 근로소득 비교: 상위 20% vs 하위 20%



[그림] 지역별 5분위 배율

(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상하위 3위, %)



*자료 출처: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실 보도자료, 상위 0.1%의 연봉도 시별도 3배 차이(원자료: 국세청), 2024.01.2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3호 \(2024년 2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분야별 정책 평가, 비례대표제 방식 등

◎ 사회 일반

[결혼 평균 비용 3억 원 시대...“79%가 집값”](#)

KBS뉴스_2024.2.2.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

연합뉴스_2024.2.5.

[세뱃돈 얼마가 적당한지 물었더니...“안 주고 안 받는게 최고”](#)

중앙일보_2024.1.31.

[“너무 비싸” 과일선물 실종...지갑 달린 설대목, 소상공인 한숨](#)

중앙일보_2024.2.4.

[“유언장을 써야 나 떠난 뒤 자식들이 안 싸워요”](#)

동아일보_2024.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현실...“빈곤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만연”](#)

연합뉴스_2024.2.3.

[서울 인구 10년간 86만명 순유출...집값 급등에 174만명 전출](#)

동아일보_2024.2.5.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OECD 국가 중 22위](#)

조선일보_2024.1.30.

[요양보호사가 치매 엄마 뺨 때려도...10명중 8명 “대안 없어” 발동동](#)

매일경제_2024.1.30.

◎ 청년 / 청소년

[청년 세대 95% “자율전공선택이 진로 탐색·직업 선택에 도움”](#)

문화일보_2024.1.31.

[상담·치료 필요한 학생 25만명... 어른들은 “사춘기 땀 다 그렇다”](#)

조선일보_2024.1.30.

◎ 경제 / 기업

[“기업 66%, 설 상여금 지급...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

연합뉴스_2024.2.4.

[“한국 라면에 세계가 빠졌다”... 국민 야식에서 대표 K푸드](#)

동아일보_2024.2.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국제

[WHO “암 발병 2050년까지 77% 증가”](#)

한겨레_2024.2.2.

[“늦은 저녁 모임 싫어요”...밤 9시면 취침하는 美 Z 세대](#)

동아일보_2024.2.5.

◎ 건강

[장수하려면 삼시세끼 중 무엇이 중요할까?](#)

주간조선_2024.2.3.

["이게 말이 돼?" 출퇴근 무심코 한 짝다리·다리꼬기 후유증](#)

중앙일보_2024.2.3.

[시간 아까워 '멀티태스킹' 한다? 뇌 쪼그라들어 위험...](#)

헬스조선_2024.2.2.

[“직장서 많이 움직이는 건 독...여가시간 운동은 건강 상태 개선”](#)

문화일보_2024.1.29.

◎ 기독교 / 종교

[추락하는 美 목사 신뢰도... 32% 사상 최저](#)

더미션(국민일보)_2024.2.1.

[다음세대가 출석교회에 바라는 키워드는... 성경 & 위로](#)

더미션(국민일보)_2024.2.5.

[가족 손에 복음 접해... 교회 통해 신앙 다지는 미국](#)

더미션(국민일보)_2024.1.30.

[은퇴 가파르게 늘어... 교단마다 “연금 공간 바닥 보일라” 비상](#)

더미션(국민일보)_2024.2.5.

◎ 오피니언

[신혼부부의 돈 고민,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중앙일보_2024.2.5.

◎ 기획기사 : 도파민 인류, (한겨레)

[도파민 인류 1 알파세대가 잃은 것]

[“선생님, 비교가 뭐예요?”…스마트폰 천 ‘도파민 인류’ 어휘를 잃다](#) _2024.1.15.

[뇌 발달 막는 스마트폰…집중력·충동 조절·언어능력 저하](#) _2024.1.15.

[아이들 절반 ‘만 2살 전 스마트폰’…소통·공감 능력 무뎌져](#) _2024.1.15.

[대만은 아기한테 스마트폰 켜주면 ‘207만원 벌금’](#) _2024.1.15.

[도파민 인류 2 도파민을 얻고 집중력을 잃다]

[수면장애·거북목·ADHD…스마트폰 과의존에 병이 로그인된다](#) _2024.1.15.

[“스마트폰 의존, 대마초보다 지능에 2배 유해한 환경” \[영상\]](#) _2024.1.15.

[혹시 나도 스마트폰 도파민 중독?…자가진단 테스트](#) _2024.1.15.

[직장인 집중 3분밖에 못 해…“금욕상자에 폰 넣고 미치는 줄”](#) _2024.1.15.

[도파민 인류 3 도파민 자극기제 알고리즘의 비밀]

[10대 중독으로 돈 버는 빅테크…미 40여개주 소송전](#) _2024.1.15.

[폰 들고 누웠는데, 벌써 새벽…‘중독 비즈니스’는 웃는다](#) _2024.1.15.

[“빅테크 기업들, 중독 설계…뇌 보상회로 자극해 쾌감 유발”](#) _2024.1.15.

[도파민 인류 4 디지털 디톡스]

[앱 활용해 운동·공부·명상…“건강한 중독에 불면의 밤 사라져”](#) _2024.1.22.

[스마트폰이 알려준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겠어요?”](#) _2024.1.22.

[스마트폰 멀리하고야 깨달았다…‘아, 나 마라톤 좋아하네’](#) _2024.1.22.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촌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캠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대전대흥침례교회(담임목사 정인택), 창일교회(담임목사 이사무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 연구소 소식 |

- 2023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3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5>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이 발송됐는데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 휴간 안내 |

- 다음주(2월 13일)는 설날 연휴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